

5월 단체·지역사회 갈등에도, 금남로서 다시 하나된다

제43주년 5·18 민주항쟁기념행사 개요 발표

민주평화대행진·오월풍물굿·전야제 정상 진행

“이어진 갈등, 행사 이후 봉합 수순 밟길” 희망

5·18민주화운동 단체와 특전사 단체가 함께 한 ‘지역 사회 내 숙의없는 사과’ 논란이 잠재

위지지 않고 있지만 5·18 43주년을 기리는 행사가 민간 주도로 예정대로 개최된다.

행사 주관 단체는 이번 행사가 43주년을 맞은 5·18을 기리는 동시에 그간 벌어진 지역 사회 갈등을 봉합하는 단초가 되길 희망했다. 제43주년 5·18민주항쟁기념행사위원회(행사위)는 10일 오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행사의 개요를 밝혔다. 간단담회에는 최철 상임행사위원장, 박상은 집행위원장, 박정은 전야제총감독이 참여했다.

‘오월의 정신을, 오늘의 정의로!’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행사에는 ▲진상규명·정신계승 ▲공동체정신재현 ▲미래세대 지지 ▲평화 통일 등 네가지 기조가 담겼다.

오는 13일 43주년 5·18민주항쟁기념 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연중 진행되는 행사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이날 오후 동구 금남로 무대에서 열리는 ‘43주년 5·18민주항쟁기념 범국민대회’에서 1980년 5월 당시 개최됐던 ‘광주시민권기대회’를 재현한다. 당시 광주 시민들은 전남도청 분수대에 모여 독재타도와 민주주의의 수호 의지를 다졌다.

행사위 등 참여 단체들은 범국민대회에서 5·18의 역사적 의미와 정신계승 의미를 담아 결의에 나선다.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대한 단죄를 선언하고 맞서나갈 방침도 공유한다.

금남로 일원에서 펼쳐졌던 오월시민난장과 민주평화대행진, 오월풍물굿 등도 전통적인 방식 그대로 진행된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오월시민난장에서는 ▲체험마당 ▲거리무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5·18의 진실과 오월 정신을 알리는 체험 부스 운영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예술공연단체들이 금남로를 누비며 오월 정신을 담은 공연을 펼친다.

동구 수창초등학교에서 시작해 금남로 전야제 무대로 향하는 ‘민주평화대행진’도 그대로 진행된다. ‘80년 5월 당시 광주 시민들이 벌였던 민주대행진을 재현한 행사는 수백여 명의 시민들이 행진하며 민주주의의 완성을 거듭 촉구하는 메시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한다.

행사의 꽃인 17일 전야제에서는 5·18 정신과 의미, 가치를 담은 총체극 ‘끝까지 우리들은 정의파다!’가 무대위로 올려진다.

지역 극단, 가수 등 예술인 150여명이 참여하는 총체극은 전세계에서 자행되는 전쟁과 불평등 상황을 광주의 5월 대동정신으로 이겨 내자는 취지로 준비됐다.

총 6장으로 구성된 총체극은 2023년 5월 현재부터 1980년 5월 18일까지의 역사를 거스르며 민주화운동 등 중요 장면들을 재현한다.

총체극의 대미는 전 출연진이 무대위로 올라 5·18 광주의 희생을 비장하게 노래한 ‘광주출정가’를 합창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그간 행사위의 행사와 함께 열려온 민주주의의날(5월 20일)과 부활제(5월 27일) 행사는 주관해온 각 5월 단체(부상자회·공모자회)가 그대로 진행된다.

행사위는 이번 행사가 5월 단체와 지역 사회 사이의 벌어진 상처를 봉합하는 단초가 되길 기원하고 있다.

지난 3월 부상자회 등이 행사위 상임단체에서 제명된 것과 별개로 필요할 경우 이들이 주관하는 행사에 기여이 도움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박상은 행사위 집행위원장은 “올해 행사위가 준비한 행사들이 그간 이어져온 갈등을 봉합하는 과정 중 하나가 되길 바란다. 행사위 차원에서도 갈등 봉합을 위한 방법을 논의 중”이라며 “관련돼 논의된 내용을 (단체들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재한기자



‘푸르른 제주 바다’ 맑은 날씨를 보인 10일 오후 제주도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을 찾은 나들이객들이 푸른 바다를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안 발표 임박...오늘 오전 당정 개회

각각 이번 주 1분기 실적발표 앞뒤

한 달 넘게 미뤄진 2분기(4-6월)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11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거쳐 확정 전망이다.

10일 에너지 당국 및 업계, 정치권 취재를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11일 오전 7시30분께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요금 인상폭을 논의한다.

앞서 한전과 가스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지구책 협의를 마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와 논의해 마련한 지구책을 당에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산자위 전체회의가 11일 오후 1시30분께 예정된 만큼, 그 전에 당정을 개최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위 전체회의에 산업부에서는 이창양 장관·장영진1차관·박일준2차관, 에너지 공기업에서는 정승일 한전 사장과 최연해 가스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다.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당정이 열린 날 전기요금도 확정 발표되는 지 여부에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며 “당정이 끝

난 뒤 여유를 갖고 발표될 수도 있겠지만, 늦어도 이번주 중에 인상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해당 지구책에 대해 여권에서 수용하는 분위기가. 다른 여권 핵심 관계자는 “(지구책에)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인상 결정을 더 이상 질질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에 당 내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경영을 하며 계속 다듬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인상 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업계 등에 따르면 킬로와트시(kWh)당 7원가량 소

폭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이는 당정 협의회에서 추가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 협의회에서 인상안이 마련되면 전기위원회 일정이 곧바로 잡힐 전망이다. 한전은 전기위 개최에 앞서 이사회를 열고 지구안을 확정 지을 방침이다.

전기위에서 전기요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하면 산업부 장관의 고시로 전기요금 인상이 마무리된다.

한전과 가스공사 실적 발표를 앞둔 만큼 이번 주 발표를 서두르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한전은 지난해 32조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며 최악의 적자난에 시달리고 있다. 가스공사의 민수용 미수금은 11조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한전은 오는 12일, 가스공사는 11일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한편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기요금 폭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요금 조정은 조만간 해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장관은 “한전 재정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민간이든 공기업이든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등 재무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한전이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금·토요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주최 **Jangseong** 장성군 주관 **장성군축제위원회**

장성 향릉강 洪 제22회 길동무 꽃길축제

2023.5.19. - 5.21. 일

(나들이객 맞이 5.22.~5.29.)

향릉강변&홍길동테마파크